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도와줄 전문기관 필요”

22일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세미나’ 열려
정보 접근성 확대·홍보채널 다양화 제안

기업의 다양한 자원이 제 주도를 위해 쓰이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가 주최하고 현정화 의원실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지난달 2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서 광대석(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소장은 기업이 제주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광 소장은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기업과 도정, 사회복지기관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홍규(JDC 사회공헌담당) 과장은 “개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 정보 접근성 확대와 홍보채널의 다양화가 필수”라며 “도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공헌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채(제주애기업협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지난달 2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 이사는 “여러 기업이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기에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며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발굴하고, 사회공헌의 영역을 넓힐 사회공헌정보센터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현미(제주특별자치도 광역푸드뱅크) 팀장은 “기업들이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더 차별적이고 더

실질적인 방법의 사회공헌 활동을 찾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립에 앞서 지역적 고민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혁(부산광역시 사회공헌정보센터) 부장은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와 연대·협력적 관계를 정립할 필요

가 있으며, 사회공헌을 사회복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현정화 위원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은 제주실정에 맞는 사회공헌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사고·재난 후유증 경감 심리지원 사업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월호 피해자, 4·3생존희생자 등 사고 및 재난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도민을 위해 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제주도는 연

강의료재단과 협약을 맺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외상 경험 이후 정신적 후유증을 가진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연강의료재단은 총 24명의 제주지역 세월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기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음악, 미술, 인지행동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 16일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약을 맺고 4·3 생존희생자 1121명과, 도내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 등을 위한 심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트라우마 치유, 정신건강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717-3000, 연강의료재단: 759-9640>

지면소개

- 종합 2~3면
합리적인 '복지 기준선' 논의 필요
- 사회복지소식 4~5면
지체장애 이동 위한 무료진료 사업 실시
- 기획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2)
- 특집 8면
시설탐방(76)- 제주작은예수집

인권취약계층을 만나는 최일선인 사회복지인들의 복지서비스 권리 관점 확립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감수성향상과정」 교육참가자 모집

일 정 2차 : 2016. 4. 28(목) ~ 4. 29(금)

장 소 우리 협의회 2층 삼다수 홀

신청방법 협의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인터넷 접수(※ 회차당 30명)

신청기간 2차 : 2016. 4. 1(금) ~ 4. 20(수)까지

강 사 고애순,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최 훈(강원대학교)
최완욱(광주인권운동센터)
신강협(제주평화인권센터)
장소영(교육협동조합 사임)

교육비 20,000원
(회원시설 종사자 10,000원)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



문의)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 064)702-3783

“합리적인 ‘복지 기준선’ 논의 필요”

지난달 9일 제주지역 복지정책 진단 세미나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 보고, 제주지역의 복지정책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은 지난달 9일 제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술·연구교류 협약 체결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정홍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승한(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미곤 부원장은 ‘세종시·서울시 복지기준선이 제주도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민이 복지권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복지기준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해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지역 간의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며, 이는 현행 복지의 공극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원 연구위원은 제주도의 사회보장 과제를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복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지역

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 향후 재정투입의 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라며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도달해야 할 적정 수준선을 전제로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승한 연구위원은 제주도 사회복지의 현실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대안으로 △복지재정 25% 수준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배분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가칭 ‘제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검토 등을 제시했다



▲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가 지난달 9일 제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권 팁&톡

인권에 대해서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다.

인권에 대한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

- UN 「인권, 새로운 약속」 중에서

사회복지인권사랑방 064)702-3783

4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장애인인권현장 낭독 -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대상 및 표창 시상 - 도지사 및 각계인사의 축하	20일(수) 11시 한라체육관	753-322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 내용: 평가지표 관련 설명 및 정보 안내 -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그룹홈 - 강사: 박경수 분과위원장(사회복지시설평가원)	7일(목) 13시~17시30분 도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성공적 프로포절 작성 및 공모정보 관리	- 공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작성 - 효과적인 표현기술과 작성 노하우, 우수사례 - 각종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관리 방법 - 강사: 고이경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8일(금) 10시~18시 도협의회 2층 삼다수홀	
	신입 사회복지사 행정실무 교육	- 교육내용: 재무회계 기초 · 재무회계규칙 교육 문서작성 규칙 및 관리 교육 - 강사: 고경운 상근부회장(제주사회복지협의회)	12일(화) 10시~17시 도협의회 2층 삼다수홀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조례안’ 발의

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에 활동이 불편한 이용객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홍경희 의원(새누리당)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달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나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2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는 내용을 말한다.

이 외에도 조례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관한 도교육감의 책무, 적용대상, 인증기준, 지원과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조례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전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 학교의 건축물 중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공공건축물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강경식, 홍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활동이 불편한 이용객들을 위해 공공건축물이 법률에 맞는 기준에 따라 인증 취득 및 유지와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누구에게나 편리한 공공건축물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3월 기탁 현황

▲금강수산유통=가자미 30kg ▲금강축산유통=돈육 278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242개 ▲대성수산=고등어 150마리 ▲동원F&B 제주지점=동원식품 5,444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쌀(3.5kg)50포 ▲서문식품=두부 555모 ▲개인기탁자(손창현)=통조림 36개 ▲신화유통=신송식품류 226개 ▲암암영농조합법인=유기농빵 62봉 ▲유진상사=오뚜기식품 3,116개 ▲자연드림 이도점=빵 241봉 ▲제주보리촌=보리빵 430개 ▲파리바게트 동광초점=빵 35봉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419봉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세제(1.5kg)72개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7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75,000	375,000
복지사업후원	1,000,000	316,060
푸드마켓후원	2,545,000	104,75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편집인: 고경운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시대변화 맞춘 경로당 프로그램 ‘눈길’

도광역경로당지원센터 스마트폰 교육 등 실시

도내 경로당 프로그램이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확대 개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우선 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 됐지만 어르신들의 최신기기 사용은 미숙한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인구가 증가하고,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치매예방 교육과 노후설계교육, 낙상방지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영상위원회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실버영화관’도 운영된다. 실버영화

관은 농어촌 등 문화생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 15곳을 찾아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영화를 상영한다.

더불어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를 위해 도내 전 경로당에 주 1~2회 이상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며, 이는 특히 농어촌 지역의 운영이 미흡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1경로당 1강사사업, 경로당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도2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시범운영

전국의 33개 읍·면·동 주민센터가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도 추진된다. 제주도의 경우 이도2동 주민센터가 시범대상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는 지난달 16일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개인별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등의 업무를 대폭 강

화한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조직되는 맞춤형 복지팀이다. 맞춤형 복지팀은 기존 복지행정팀과는 별도로 구성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과 지역자원 발굴 연계, 통합관리 사례수집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2016 사랑애 사진공모전’ 오는 20일까지



“사진으로 사랑을 전해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오는 20일까

지 「사랑애(愛) 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랑애 사진 공모전’은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을 주제로 진행된다.

응모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foster.or.kr) 및 이메일(jeju-foster@gmail.com),

우편(제주시 연삼로 22, 3층)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 10명을 선정하며,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7일에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특히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사진공모전은 역대 수상작품을 모아 특별한 전시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의와 함께하는 부모 아카데미 열려요”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영은)는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부모 자녀관계를 돕기 위한 부모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도내 학령전기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모 아카데미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관련분야 전문의를 초빙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의 이해 및 바람직한 양육기술’을 주제로 한 강의로 구성된다.

각 회기별 교육은 1부 전문의 강의, 2부 전문의 무료상담 및 집단 토론으로 나누어 열린다.

또한 필요시 부모 및 자녀 대상 무료 정신건강검사와 저소득층 치료비지원 가능 대상자(한부모·다자녀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비용, 진료비, 프로그램 참여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는 지난 달 처음 시작됐으며, 앞으로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마다 총 9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청소년팀(제주보건소 내): 728-4076>



‘일곱 제주사회복지사 이야기’ 발간

일곱 사회복지사가 1년 동안 글쓰기 과정에서 써내려간 글이 책으로 발간됐다. 함께 읽고 쓰고 나누는 제주 사회복지사 글쓰기 공동체 기록, 「일곱 사회복지사 이야기」가 바로 그것.

책은 김세진(사회복지사 사무소 구슬) 소장의 강의로 강인숙, 고정림, 박미란, 신미선, 양정아, 유철호, 윤주영 사회복지사가 글쓰기 과정에서 쓰고 다듬은 이야

기들을 엮어 만들었다.

제주의 사회복지현장 이야기가 담긴 이 책에는 아동부터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현장 속 사회복지사들의 실천과 삶의 경험들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제주 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사회사업가의 글쓰기 과정’의 결과물 「일곱 제주사회복지사 이야기」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사)더사람 선정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사단법인 더사람(대표 김창범)이 선정됐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15일 열린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운영법인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단법인 더사람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더사람은 오는 5월부터 제주혁

신도시 바람모루 공원 내에 위치한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맡는다.

사단법인 더사람은 노인복지관 연계 사업으로 공익활동 사업단, 노노케어사업단, 1~3세대 통합프로그램을 제시했으며, 특화프로그램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찾아가는 복지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림제주 사회구현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과장 나용해)와 제주특별자치도종합사회복지관협회(회장 윤희기)는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림제주 사회구현 협약’을 지난달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부정한 선물을 주고 받지 않으며,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문화

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또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에도 상호 협력한다.

나용해 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며, 청렴과 투명행정에 앞장서도록 꾸준히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체장애 아동 위한 무료진료 사업 실시

한국가스공사 후원·분당서울대병원 협력 총 185명 혜택



▲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도내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세유지 재활보조기 지원 및 경직클리닉이 춘강의원에서 실시됐다.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은 장애상태에 대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다면적 진료를 바탕으로 의료재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미래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시간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병원 진료를 미

루는 경우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이런 문제를 감안해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유지 및 경직클리닉 무료 진료사업을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제주 춘강의원에서 실시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의 후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과 함께 진행한 이번 사업은 도내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총 69명을 대상으로 자세유지 및 경직클리닉 등의 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진료사업으로 6명의 아동이 1대당 200~700만원 상당의 자세유지 재활보조기를 지원받았으며, 16명의 아동이 진료결과를 바탕으로 무료 수술을 제안받았다.

한편, 2014년부터 이어진 이 사업으로 총 185명의 아동이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도내 18세 미만 지체·뇌병변 아동의 34%에 이르는 비율이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3개 기관 손 모으다

한샘제주점(대표 이승규)과 제주맘카페(대표 김향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함께하는 「2016 사랑의 집고쳐주기-리브하우스 사업」이 지난달 5일 첫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이날 리브하우스 사업에 참여기관들은 두 달에 한번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정을 찾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에 앞장설 나갈 계획이다.

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화북동의 주거취약 가구를 찾아가, 이중창 제작 및 싱크대 설치, 가전·생활용품 지원, 실내 청소 및 환경정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 참여기관들은 두 달에 한번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가정을 찾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제공에 앞장설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경제증권교실’ 2년 연속 선정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이 삼성증권(주식회사)이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가 주관하는 ‘청소년경제증권교실’에 2년 연속으로 제주 거점센터로 선정됐다.

청소년경제증권교실 거점센터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3곳을 선정해 경제놀이터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경



제놀이터 교육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돕는 경제 관련 기본 지식들을 가르친다.

시설종사자 인권 교육 업무협약 체결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강사단(대표 신강협, 이하 인권강사단)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인권사랑방(위원장 고관용, 이하 사회복지인권사랑방)이 도내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친화적 문화확산을 위해 함께 땀을 흘린다.

평화인권센터 인권강사단과 사회복지인권사랑방은 지난달 10일 사회복지현장의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교육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인권사랑방은 사회복지시



▲ ‘도내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친화적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지난달 10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권강사단의 자문 및 전문인력 강사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옹호자양 사업추진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방문을 통한 인권교육실시 △인권교육강사의 역량강화사업 추진 △그 외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기초관리본부 선정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초관리본부에 선정됐다. <사진>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여르신돌봄은행)이란 돌봄봉사활동 시간을 점수화해 포인트로 축적·관리하고, 이를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만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는 제도다.

돌봄봉사자는 만13세 이

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돌봄대상자 가정을 계획적으로 방문 봉사한다.

회장단·상임위원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태봉)는 지난달 16일 부회장 및 상임위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회장단·상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진성회원 1천명 시대! 제주사회복지사 이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



숍에는 오는 4월 6일 열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의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복지증진·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윤근)와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이사장 김부찬)는 지난달 22일 도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



을 맺고, 제주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소/식/마/당

송죽원 개원 15주년 행사 열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9일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개원 15주년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를 열었다.

도내 각계인사, 사회복지관계자,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여한 행사는 지난 15년 간 송죽원의 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 유공자에 대한 표창·감사패 전달식, 난타 및 각설이 공연,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창립 15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이사장 정석왕)은 지난달 14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제주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 수립된 법인의 비전선포식도 함께 이뤄졌다.

정석왕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올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벤엘 개원 10주년 행사 개최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벤엘(시설장 임주리)은 지난달 15일 벤엘 앞마당에서 개원 1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의 각계 인사와 시설거주인 및 보호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선도어린이집 원생들의 축하공연, 거주인들의 식전 공연이 열려 큰 호응을 받았다.

아라주는 아라 만들기 사업 실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의 ‘아라주는 아라마을만들기’ 3년차 사업이 실시된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아라주는 아라만들기’ 사업은 △1·3세대 통합프로그램 old&new △마을 주민이 직접 기자가 되어 소식을 전하는 아라신문 △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아라하모니 합창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예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선정



일배움터(원장 정춘진)의 ‘청년발달장애인 도예전문가 양성 프로젝트’가 카카오 제주 사회공헌 프로그램 인터넛하는 돌하르방 2016년 1분기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도예전문가 양성 프로젝트는 흙을 다지고 반죽하고, 굽기까지의 전 과정을 알차게 배울 수 있게 준비됐다. 장애인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컵, 식기, 화분 등의 도자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탐라에서 고려를 보다’ 역사 교육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진옥)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도내 6개 지역아동센터(대화, 빛과소금, 대정골, 1318해피존더불어숲, 더불어숲, 꿈쟁이)와 함께 ‘탐라에서 고려를 보다’ 역사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성장기 청소년의 역사인식을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이론교육(5회), 제주현장체험교육(2회), 현장체험 등으로 실시됐다.

벽화나눔 활동 프로그램 개강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덕수)는 지난달 12일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함께하는 세상, 해피컬러로 물들이다’를 개강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내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기효능감 향상,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장애인 권리증진 프로젝트 진행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2016년 공동모금회 신청사업으로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자기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권리증진 프로그램 ‘즐길거리(권리)찾아! 우리권리 찾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중증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3명은 멘토활동, 12명은 체험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을 높여라’ 강의(강사 장소영)를 지난달 22일 진행했다.

장애인가족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강의는 스트레스 조절, 정서적 에너지 충전과 회복력 증진,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유대를 만드는 능력키우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 및 후원물품 전달



제주 썬 호텔&카지노 (대표 신광식) 임·직원들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을 방문해 자원봉사 및 18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또한 제주 썬 호텔&카지노 임직원들은 거주장애인 및 종사자들과 같이 간식제공, 식사보조 등의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했다.

주방일손 돕기 및 원내청소 봉사



천지동노인회(회장 김봉수)는 지난달 25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찾아 주방 일손 돕기, 원내 청소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천지동노인회는 정기적으로 매달 넷째 주 또는 마지막 주 평일에 정혜재활원에 방문하고 있으며, 청소,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맞춤형 직업적응훈련사업 진행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이민숙)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작업장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적응훈련사업’ (2년차)을 시작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사회적응 프로그램(금전관리, 문화체험 등), 직무능력향상프로그램(판촉물인쇄, 포장훈련 등), 직업유지적응사업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1월까지 실시된다.

시론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민간자원 확대의 길



현정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도 곳곳을 다니다 보면, 한국마사회 지원 차량, JDC 지원 차량, KT&G 지원 차량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이 후원하는 행사, 복지 시설 등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과거에는 기부나 봉사활동처럼 일회성 행사에 치중되었다면, 요즘은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기업이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주로 본사를 이전한 12개의 회사가 제주애(애)기업협의회를 만들었다. 제주애(애)기업협의회 소속 기업들은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단순 홍보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진정한 일원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높여야

제주로 이전한 기업 외에도 많은 제주도의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제주도 기업들의 사회공헌 규모, 활동내역,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파악하거나 관심을 갖는 행정이나 지역사회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3월 22일 개최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공헌 활동 정보 접근성 확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교류의 허브 역할 등을 수행할 지원

조직이 필요하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한국 사회공헌정보센터를 비롯해 광역단위 10개의 지자체에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설립돼 있다. 이제 제주에도 사회공헌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공헌사업 제안, 사회공헌 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 제공, 사회공헌 활동 DB 관리, 프로그램 발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위한 투자 마중물

사회공헌 지원 조직 설립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공공자원의 부족에 대한 민간자원을 확대하는 길이다. 곧 사회공헌 지원 조직 설립은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제 기업에게 막연하게 사회공헌을 해야한다는 당위성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공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 정책,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되겠다.

칼럼

재해에 취약한 장애인 재난사고, 대책 수립해야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지난 2월, 용담동 빌라에 거주하는 하반신 마비 여성장애인이 혼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에 의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자력탈출이

불가능하여 일어난다.

10년 전 제주도를 강타한 태풍 ‘나리’ 때 조천에 사는 시각장애인부부가 온통 불고 있는 물에 목숨을 잃을 뻔 한 적이 있었다.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는가. 제주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지진이 나면 어떨까.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장애인대피 매뉴얼을 확인해 보면 ‘글쎄요’ 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자료가 없어 2011년 제주도 행정자료를 보면 재해위험지구의 마을에는 약 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재해발생 시 신속히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290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지진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먼저 구조하라고 되어 있다. 이는 국민행동요령이지 행정행동요령이 아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안전대책 취약성 유엔서도 지적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ADA(장애인법)」에서 장애인 지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련법령과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을 위한 피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재난상황 시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난 대비 기본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계획에 장애인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없다.

최근인 2015년 제시한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5대 전략, 100대 과제’에도 장애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들에게 국민행동요령은 요구하면서 정작 법제에서 국가의 ‘장애인 우선’ 매뉴얼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안전대책 취약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지적당한 사안이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자연재해와 위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재, 각종 법령에 재난 대피체계가 없으며 보편적인 접근성과 장애포괄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 받았다.

장애인들은 재해에 취약하다. 장애로 인한 불가항력을 최소화 하여 주고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설계와 장치는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의 선량한 의무라 할 것이다. 제주가 안전도시가 되길 바란다.

기고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물결



김성목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예전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던 적이 있었다. 치매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기에 불편이 많았지만 자녀들도 일을 하고 있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따른 부양비가 부과되었고 그로 인해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문제는 부양비 부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제도에 대한 항의를 많이 받기도 하였다.

물론 민원인들의 항의를 경청하고 입장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기에 민원인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사회복지 업무처리에 고단함을 느끼던 중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새롭게 개정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의 합리화, 재산의 소득환산 개선 등이 반영되었고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으로 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탈락됐던 분들이 재신청을 통해 수급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도입 이전보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감소와 더불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새로운 제도에서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친절과 청렴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같이 수반되어야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복지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작은 관심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사회복지 행정의 최일선 공무원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로 발전하기를 소망해 본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②

홍익아동복지센터 김순실 원장



배고픔 이기려 초등학교만
졸업한 아이들 일터로...
마음속 상처 치유 위해
합창단 · 핸드벨 교육 시작

“어릴 때 이웃집에서 애를 낳고 굶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족의 아픔이 나의 슬픔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누구나 생활하는 게 어려웠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비쩍 마른 친구들을 보면 유독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못 본 척 못했던 김원장은 자선 사업가가 꿈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엔 집 인근에 위치한 고아원을 방문해 어떻게든 작은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다. 과자 한 봉지라도 사고 가면 자신을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며 반갑게 맞이해 주던 아이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멀리 제주까지 내려와서 당시 홍익보육원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이 궁금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친구가 있는 제주에 잠시 내려오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신세지는 것도 미안하고 어릴 적 꿈이었던 보육원에서의 생활을 결심했지요. 그런데 인연이 닿으려니까 우연찮게도 버스 정류장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홍익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길에 당시 외도동에 있던 홍익보육원으로 가서 일 자리를 알아봤죠”

“사랑하며 키우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어요”

40년 간 어려운 아이들 돌보며 ‘외길’ ... 그래도 감사할 뿐

아동양육시설 홍익아동복지센터는 1951년 8월 고수선 여사가 전쟁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홍익보육원’이란 이름으로 설립했다. 김순실 원장(이하 김원장)은 그렇게 전쟁 중에 설립된 홍익보육원이 제주시 외도동에 자리잡아 운영되던 1976년부터 인연을 맺고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살아 온 김순실 원장을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두 번째 인물로 만나보았다.

그렇게 김원장은 1976년부터 홍익보육원에 근무를 하게 된다.

김원장이 근무할 당시 보육원 환경은 어떠했을까? “제가 입사를 한 때에도 15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당시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오백원인데 선생님들 급여는 오천원에서 칠천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일백이십 여명에 이르렀는데 선생님은 여섯명에 불과했어요. 지금처럼 학습지도나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하느라 건 상상을 못했어요. 말 그대로 보호수준에 그쳤죠.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그게 하루 일과였어요. 빨랫감은 왜 그렇게 많은지 빨랫감을 한 가득 이고 빨래터에 다녀오기를 반복하기만 한 날도 있었어요”



▲ 1978년도 홍익보육원이 외도동에 있던 시절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아이들.

당시 보육원에 들어오는 아동들은 제주도의 아이들인 경우 부모의 경제사정으로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은 버려지거나 길을 잃고 일시보호소에서 보호받다가 지방으로 보내지는 경우였다고 한다.

아이들 손에 쥐어지고 온 서류는 이름은 물론 발견된 장소조차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형제지간인데도 성이 다르게 기록되는 등 아이들 대한 기록자체가 많이 부정확했다고 한다.

“후원이라고는 월드비전의 외원 보조금으로 한 아이에게 매월 5~6불 정도가 지급되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면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는 열 명 중 서너 명 정도였죠. 학비부담에 진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배고픔

을 이기려고 취업을 하려고 했죠. 음식배달, 빵집 종업원, 철공소 등에 취업을 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뭘 잘하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밥 한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으며 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보육원에서 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김원장은 ‘신앙의 힘’을 이야기 했다. 지난 40여년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해 온 시간이었다고 한다. 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 지금의 자신, 홍익의 현재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홍익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이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핸드벨 종소리다. 아이들에게 합창과 핸드벨 교육을 시키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시설에 입소하면 사람과 사회에 대해, 믿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다가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선한 인성을 길러주는데 음악만큼 좋은 게 없겠다 싶어 2002년도에 시작하게 되었죠”



▲ 2006년도 ‘영기치 영채 신나는 운동회’에서 아이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홍익의 합창단과 핸드벨 공연은 전국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는 홍익만의 브랜드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아이들에게 연습을 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아쉬워했다. 김원장은 제도로써 강제하는 아이들의 ‘인권’이 정작 아이들의 삶터에서는 가족 간의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다.

김원장은 내년이면 퇴임을 앞두고 있다. 조금 이른 소회를 들어봤다. “사랑이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솟아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만큼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하며 지난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만큼 후회도 없지요. 아이들만 보며 살아온 시간에 감사할 따름이예요”



▲ 홍익아동복지센터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에버그린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40여년 보육원 생활동안 힘든 일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서슴없이 “힘든 적 없었다”라고 답하는 김원장의 자신감의 밑천은 ‘섬썩는 사랑’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끝으로 아동복지현장에서 김원장의 길을 좇아 함께 하는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부탁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힘들다고 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보람을 찾으며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자신에게 참 고생했다며 위로하고 격려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 순간만큼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리·김성건 사무국장〉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지역복지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탐방

(76)제주작은예수의집

사회가 함께 꾸리는 아늑하고 포근한 가정

소규모 공동체로 더욱 가족같은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 봉사자 · 사랑나눔회원 도움 가득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말이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작은예수회가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쏟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은예수회는 전국에 약 50여 개의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및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소규모 공동체다.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동체를 꾸리는 이유는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 아래 세심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제주 작은예수의집(시설장 조효례)의 설립 취지도 이와 같다. 제주 작은예수의집은 여성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총 9명의 여성지적장애인과 시설장, 재활교사 그리고 봉사자들이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하고자 마련된 보금자리다.

제주작은예수의집은 1984년 설립된 작은예수회의 제주지역 첫 소규모 공동체로 1993년 개원한다. 시설은 한 가톨릭 신도로부터 용담1동에 위치한 주택을 기부받아 마련됐다.

시설의 분위기는 아늑하다. 제주 작은예수의집을 실제 방문해보면, 시설이라기 보다는 한 가정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는다. 시설장과 재활교사, 봉사자가 이용인들과 함께 가정 같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오순도순 삶을 꾸리고 있기 때문이다. 큰 공간은 아니지만, 한 가정이 어우러 지내는 삶을 사는 데 그만이다.

제주 작은예수의집은 지적여성장애인들의 삶을 포근히 감싸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결집되는 곳이다. 시설장과 재활교사뿐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덕



▲ 제주작은예수의집은 지적여성장애인들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자, 사랑나눔회원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모이는 곳이다.

분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고 있다.

한지공예 수업의 경우 구연동화 봉사회인 ‘색동회’ 회원들과 함께 진행된다. 장애인들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종이재질의 재활용품을 한지를 이용해 접시, 정반, 휴지통 등의 생활용품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시설을 찾은 손님과 사랑나눔회원들에게 선물로 전달되기도 한다.

또 하나 장애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은 난타수업이다. 난타수업은 용담1동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진행된다. 장애인들은 흥겨운 놀이를 하듯 북을 두들기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지난달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난타공연을 펼칠 만큼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 외에 제주작은예수의집에는 다양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진다.

여러 성당에서 찾아와 빨래를 돕기도 하고, 아시아나 항공 직원, 제주대학교, 사대부고, 제주중 학생들이 찾아와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사회가 함께 꾸리는 공동체인 것이다.

조효례 시설장은 “제주작은예수의집을 운영하며, 세상에는 약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봉사자들과 함께 장애인들이 더욱 따뜻하고 포근하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30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다면?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소송구조제도 · II

지난 호에 이어 인권 옹호를 위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법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고액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무자력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해야 함을 말한다.

◆ 무자력과 승소가능성 필요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

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법원에 신청하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구조결정이 바로 변호사의 선임의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비용 지원을 통해 변호사 선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난 호에서 설명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도 수월해 진다. 그러나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재판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지원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이외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민간 법률구조법인으로서 가사 사건에 대해 무료 상담과 소송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064-753-9421)로 문의하면 된다.